

■ S-309 ■

폐 실질 기원의 유잉육종/원시신경외배엽 종양 1예

¹양산부산대학교병원 내과, ²병리과, ³영상의학과*안은영¹, 전두수¹, 김윤성¹, 이수용¹, 최경운², 김건일³

서론: 폐는 뼈를 기원으로 하는 유잉육종의 흔한 전이병소이지만, 폐 실질 자체를 원발로 하는 유잉육종은 극히 드물다. 저자들은 29세의 특이병력 없던 여자 환자에서 수술로 폐실질 기원의 유잉육종을 진단하고 보조항암요법으로써 치료한 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.

증례: 29세 여자가 흉통으로 시행한 흉부전산화단층 촬영에서 좌측 하엽에 종괴가 있어 추가적인 검사를 위해 전원되었다. 흉부 전산화단층 촬영에서 5.5×4.5 cm 크기의 비교적 부드러운 경계의 조영증강되는 종괴가 인접한 흉막하 간유리음영과 폐경화 소견과 함께 좌하엽에서 관찰되었다. 비디오흉강경수술(video-assisted-thoracoscopic surgery, VATS)을 통한 절제를 시행하였고 병리소견에서 4.5×4.4 cm 크기의 흉막과 완전히 분리된 비교적 경계가 명확한 종괴가 관찰되었다. H&E 염색에서 수많은 로제트형성이 보여 신경외배엽종양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. 면역조직화학염색에서 vimentin, CD99, CD56, synaptophysin 양성, LCA, PanCK, S-100 protein, CD34, chromogranin, EM 음성, Ki-67 proliferation index 20%, FISH (Fluorescence in situ hybridization)에서 EWSR1 (Ewing sarcoma breakpointregion 1) 22q12 재배열을 보여 유잉육종으로 진단하였다. 양전자방출단층촬영에서 타 부위에 병소 관찰되지 않아 폐 실질에서 기인한 원발성 유잉육종으로 진단하였다. 좌하엽절제술 시행 한 달 후부터 9개월 간 6주기의 vincristine, cyclophosphamide, doxorubicin ifosfamide, etoposide 포함하는 보조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였다. 항암치료 종료 1개월 후 시행한 흉부 전산화단층촬영, 양전자방출단층촬영에서 재발이나 전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6개월 간격으로 경과관찰 중이다. **결론:** 흡연력이 없는 젊은 나이에 폐에서 비교적 경계가 명확한 종괴가 발견되었을 때 매우 드물지만 폐실질 기원의 유잉육종의 가능성도 염두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.

■ S-310 ■

급성 폐색전증 환자의 사망 예측 인자로서 흉부전산화단층촬영의 유용성

대구가톨릭대학교

*김민근, 오지혜, 현대성

배경: 최근 암환자 및 노인 환자의 증가로 폐색전증의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, 진단에 이용되는 여러 검사법 중에서도 나선형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은 혈전을 직접 관찰할 수 있고 종격동 및 폐실질을 평가할 수 있으며 폐동맥 색전증 이외의 부가적 진단이 가능하다. 저자들은 나선형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에서 Araoz 등이 제안한 폐색전지수(embolic burden scoring)를 이용하여 폐색전증 환자의 임상 지표들과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. **방법:** 1998년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chest CT로 폐색전증을 진단받은 145명 환자들(남자 63명, 여자 82명, 평균연령 62세)을 대상으로 의무기록을 검토하였다. **결과:** 폐색전증으로 진단받은 145명의 환자 중 남자가 63명, 여자가 82명이었고, 연령은 19세에서 91세로 평균은 62.1±16.2세였다. 17명이 사망하였고 폐색전증과 관련된 사망은 11명이었다. 진단당시 주증상은 호흡곤란이 70명(48.3%)으로 가장 많았고 다리 부종 37명(25.5%), 흉통이 10명(6.9%)에서 관찰되었다. 전체 환자 145명의 폐색전지수는 평균 18.3±13.9이었다. 사망군의 폐색전지수는 21.8, 생존군의 폐색전지수는 18.6으로 양군간의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($p>0.05$). 사망군의 평균 나이는 76±10.7세였고 생존군의 평균 나이는 평균 61.2±16세로 차이가 있었으며($p=0.008$) 백혈구, D-dimer, Prothrombin time, INR 등의 혈액학적 검사는 양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. 또한 폐색전지수는 백혈구, D-dimer와 각각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. 또한 65세 이상 환자들에서 폐색전지수가 유의하게 높았다. **결론:** 본 연구에서 폐색전지수는 사망을 예측할 수 없었으며 다른 검사실 소견들도 사망을 예측할 수 없었다. 폐색전지수는 고령인 경우, 백혈구, D-dimer가 높을수록 더 높게 측정되었다.